

종달새

종달새는 이른봄날
즐드즌 거리의 뒷골목이
싫더라.
명량한 봄하늘,
가벼운 두나래를 펴서
요염한 봄노래가
좋더라,
그러나,
오날도 구멍뚫린 구두를 끌고,
홀렁홀렁 뒷거리길로,
고기색기같은나는 헤매나니,
나래와노래가 없음인가,
가슴이 답답하구나,

一九三六、三月、平、想

종달새

종달새는 이른 봄날
질디진 거리의 뒷골목이
싫더라.
명량한 봄하늘
가벼운 두 나래를 펴서
요염한 봄노래가
좋더라.
그러나
오늘도 구멍뚫린 구두를 끌고
홀렁홀렁 뒷거리길로
고기새끼 같은 나는 헤매나니.
나래와 노래가 없음인가
가슴이 답답하구나.

1936. 3.